

어부와 그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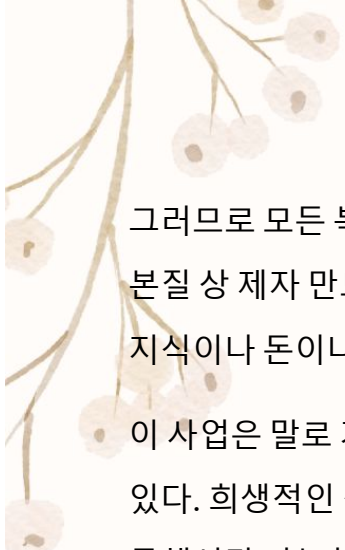
- 강영훈 선교사

세간에 많이 회자되는 책 '제 4 차산업혁명'을 쓴 슈밥(Klaus Schwab)은 세상이 정보통신 기술의 융합에 따른 혁신의 시대로 이전하고 있는데 이 변화의 환경을 이해하고 혁신을 지속하지 못하는 기업과 경영자는 도태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이런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사람을 가장 우선시하는 사람 중심의 경영이 이루어져야 기업의 혁신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한다.

복음사업을 하는 하나님의 기업도 예외가 아니어서 일보다는 사람 중심의 경영을 할 때 생산성이 높아지고 사역의 풍성한 열매를 기대할 수 있다고 믿는다.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우리 민족 특유의 '빨리빨리' 문화에 길들여진 후원교회나 후원자들은 단 기간 내에 확인 가능한 사역의 성과를 기대하고, 일선의 선교사들은 그런 바램과 기대에 부응하고자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가시적인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애쓰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다 보니 시간 걸리고 표도 안 나는, 사람을 키우고 제자를 만드는 일보다 구제나 건축 등 가시적인 결과물을 만드는 일에 더 열심을 내기도 한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거룩한 복음사업일지라도 그 사업이 일이 중심이 되면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은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일의 성취를 위한 수단이 되고 만다. 일 중심이라는 말은 일의 성과를 중시하는 것이기에 몇 명을 전도하고, 몇 명에게 세례를 베풀고, 몇 개의 교회를 개척했느냐가 평가의 기준이 되고 그런 것을 열매로 간주하게 된다.

그러나 성경은 복음사업이 제자를 만드는 사업이고 복음사역의 열매는 제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제자는 일보다 사람을 중시 여길 때, 일의 성과보다 사람의 변화에 초점이 맞춰질 때 만들어진다. 예수님은 어부의 빈 그물에 물고기를 가득 채우는 기적을 베푸는 일 보다 그 어부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드시는 일에 공생애를 바치셨다. 그리고 그가 키워낸 제자들을 통해 지구촌 인구의 1/3 을 복음으로 정복하셨다.



그러므로 모든 복음사역은 일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 혹은 관계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이런 본질 상 제자 만드는 사역은 대량 생산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단기가 아니고 장기 사역이고 지식이나 돈이나 열정만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과업이다.

이 사업은 말로 가르치기보다 본이 되는 삶을 보여줄 때만 효과가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희생적인 섬김과 나눔의 실천을 통해 그리고 구별된 삶을 살아 내려는 발버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항상 본을 보이려는 자의 성실함과 본 대로 따르려는 자의 안간힘이 어우러질 때 우리는 피차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이다.

일찍이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대 위임 명령도 가서 제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었는지 자문해 본다.

